

〈특별기고〉 權仁浩(철학박사, 대진대 명예교수, 한국동양철학회 명예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¹⁴⁾



이것은 출처가 홀로 그것만 중요한 것이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만약 그럴다면 노장이나 불교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식은 당시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시대정신으로서 출처에 입했다는 것이다.

일찍이 남명의 수제자인 정인홍이 이언적·이황의 문묘종사 논의에 대해 종종 시대 기묘사화(1519년) 이후와 특히 즉 을사정미사화 이후 명종 연간 문정왕후의 죽음까지(1545~1565년) 조정의 벼슬살이에 대한 진퇴(출처)를 거듭한 것 또한 진정한 '선비'로서 과연 올바른 출처의리 지킨 것인가? 하는 비판(이른바 '[회퇴변척소晦退辨斥疏] ("광해군일기"권39, 3년 3.26. 병인)'에 대한 문제제가 뇌리에 스친다.

진정한 선비의 유교적 리더십은 '개인의 사사로움 욕망(私慾:私意)'이 아니라 현재에 중정(中正)한 시중지도(時中之道)의 시대정신을 지니고, 확연대공(廓然大公)한 군자·대인·선비의 공심(公心)과 정신·사상으로 자연 사물과 인간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논한 바대로 여기에 가장 적합한 학문사상이나 정치철학적 핵심은 유학의 민본·위민사상이다. 확연대공이란 먼저 넓고 텅 빈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청렴고결하며 근검절약하여 물질적 욕망을 바탕으로 한 사적인 재산 축적에서 벗어나야 하고 벼슬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전통에는 선비와 청백리 등 청빈(淸貧)의 고결함과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영조의 탕평책이나 성균관의 문묘 대성전 앞뜰에 탕평비(주이불비내군자지공심周而不比乃君子之公心 비이부주식소인지사의比而不周楚小人之私意; 두루 화합하고 사귀며 편벽되지 아부하지 않는 것이 군자의 공심이고 편벽되어 아첨하고 두루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소인의 의욕이다)까지 세위 태학생(太學生; 유생儒生)에게 경고했지만, 노론 벽파들의 주장으로 아들 세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행위를 세손인 정조가 목격하였다. 정조도 철치부심으로 침전에 '탕탕평평실'을 붙이고 왕도정치를 제대로 실행하려 했고 많은 업적을 남긴 성군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왕을 이해(弑害)하겠다고 수차례 침전까지 살수를 보내다가, 끝내 독시(毒戕)의 혐의가 아직도 시비논의가 분분하다.

최근 8월 21일 '한국동양철학회 2021년 하계 학술대회'가 학회가 주관하고 어진 마을인 구미(선산)시 여현학연구회의

후원으로 구미성리학역사관(아은관)에서 여현 장현광 선생의 성리학과 역학 철학사상을 연찬 토론하는 뜻 깊은 모임의 장에 필자도 기조발표 논문(박흥식 전통문화연구회 대표, 학회고문, 대구한의대 명예교수)의 논평자로 참석하였다.

다음은 제가(본인이) 발표자에게 논평과 질문 및 해설한 내용의 일부이다.

박대표는 '구미의 인문학 전통과 장현광 철학의 사상적 특징'제목으로 구미의 인문학 전통에 대한 태동, 전통과 그 꽃으로서 철인(哲人)으로서 여현(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의 학문과 철학사상을 6주제로 본류를 전개하여 그 계승할 내용과 존현정신을 주장하였다. 인간(人間; 사람과 사람사이)은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에는 특히 문화적, 인문학적 연대감 중요한데 우리 한국 사회와 구미도 그 핵심은 유교문화라고 주장한다. 최현광의 [일선지—善志], 이익(서문),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 정약용(발문) 등에서, 풍수와 교화 그리고 군자와 사대부가 살만한 장소로 구미를 신라시대 이후 지명의 변천까지 살폈다.

1. 성현의 [용재총화], 이중환의 [택리지] 등에서 “조선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다. :조선인재朝鮮人才 반재영남反在嶺南”인데 ‘그 반이 일선(선산:구미)에 있다.’”는 것과 함께, ‘그 반이 진양(진주)에 있다.’와 ‘그 반이 안동에 있다.’는 이야기(說)를 들어 보셨는지? 4쪽에 구미의 주산이 ‘비봉산’이라 하였는데, 진주의 주산도 비봉산, 봉알자리, 봉곡동, 상봉동(서)동도 있으며, 혹은 경상도 인재의 보고와 관련하여 ‘좌안동 우함양’이란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4쪽에 구미 인문학의 태동, 아은 길재에 대한 도통연원(道統淵源,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정여창)-조광조; 고봉 기대승-12쪽)에 대하여,

“아은 길재(吉再, 1353~1419, 본관은 해평)은 18세 때(구미에서) [논어]와 [맹자]를 배우고 박분(朴賁)과 (지급주사知錦州事였던 부친을 보려고 개성에 갔다가) 뒤에 생원시·사마시 등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양촌 권균을 종유(從遊)하여 성리학을 배웠다.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자 드디어 물러나 봉계(鳳溪)에 살았다. 그 후로는 벼슬을 제수하여도 부임하지 않았다. 두 姓氏를 섬기지 않는 의리를 지켰다. 양촌이 죽자 삼년을 심상(心喪)하고 박분이 죽자 똑같이 하였다”(‘아은길선생전’“남명집”속집)를 참고하여, 후일 남명과 퇴계 및 그들의 제자들이 포은 정몽주에 대한 출처의리와 시비논란이 있었던 것과 논자의 논문 5-6쪽(주5)의 여현의 아은 길재에 지조를 호묘한 부(賦)隱竹賦)를 참고하여볼 때 여현의 ‘출처의리와 토통연원’에 대한 논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다음호에 계속)

부산종친회

안동권씨종보 제165호 대종회에 기증

부산종친회(회장 권성용, 사무국장 권채영)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할 안동권씨종보 제165호(1989년 3월 1일자) 1부를 8월 19일 대종회에 기증했다.

부산종친회에서 수십 년이 지난 귀중한 역사적 자료를 그동안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역사적인 순간 대종회에 가까이 기증해 주었다.

안동권문의 저력이 아닐 수 없다. 안동권씨 대종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광고를 통해 지난 5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당시 누락된 제165호 종보 소장자를 찾은 바 있다. 이로써 안동권씨종보는 1974년 12월 창간호부터 매월 발행한 모든 종보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영구 보존하게 되었다. 안동권씨종보는 안동권문의 자부심이자 역사이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앞으로 도 안동권문의 역사를 온고지신(溫故知新)하며 자손대대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편집국장 권형완



종보 제165호

권세목 북야공파회장 취임 고유제

권세목 신임 북야공파회장이 8월 17일 오전 11시 시조 태사공 묘소에서 북야공 파회장 취임에 즈음하여 권갑현 상임부회장, 권기갑 부회장, 권오의 파종회 감사, 권영채 사무국장 등과 함께 고유제를 봉행했다. 일행은 시조 태사공 묘소 고유제를 마친 후 파조 단소로 이동하여 고유제를 지냈다.

권영채 사무총장, 권갑현 상임부회장, 권세목 회장, 권기갑 부회장, 권오의 감사(왼쪽부터)▶



한국효행열전 발간에 따른 효행자 신청 안내

뿌리공원 전국문중협의회에서는 한국효문화진흥원 “한국효행열전” 편찬 사업으로 뿌리공원에 조형물이 설치된 244개 문중의 자랑스런 효행자 선양 사업을 추진한다 하오니, 안동권씨 각 파 및 각 문중에서는 자랑스러운 효행자(효자, 효녀, 효부, 열녀 등)가 있을 경우 우측 양식에 기재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9월 24일(금)까지 대종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문중의 역사 속 자랑스런 효행자를 추천받아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책으로 출간하여 효행자 선양

●조사방법: 신청한 효행자를 대상으로 조사원의 현장방문 및 전화 인터뷰

●주요내용:

-삼국시대부터 1910년까지 실존 인물로 관련 문헌 및 족보로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 효행자

-효행사적을 중심으로 하며 집안 소개 및 관직 나열은 제외

-효행사적 관련 근거 문헌 제출(족보 및 문중 문헌, 문헌 사진 등)

●제출방법: 우 편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2층)

이메일 : andongkwonmun@daum.net

팩 스 : 02-2695-2485

한국효행열전 효행자 신청서

효행자 본관	
효행자 이름	
효행자 생졸년(시대)	
투고자 정보	본관
	이름
	주소
	연락처
제출서류	1. 효행사적
	2. 효행자 관련 그림 또는 사진 (경리, 사당, 무덤, 비석 제외)
	3. 출처: 족보 및 문중 문헌 자료 (사본 또는 원본 포함)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9.

신청인: (서명)

한국효문화진흥원장 귀중

안동권씨 대종회